

기도하는 생활

빌립보서 4:6-7

김요셉 목사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기도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서론 :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 (1) 무엇을 믿느냐이다. (마16:16)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다.
- (2) 어떻게 믿느냐이다. (히4:12)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이다.
- (3) 무엇을 남기는가 하는 것이다. (행16, 17, 18, 롬16) 제자를 남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1. 왜 기도해야 하나?

- (1)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다.
- (2)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요14:13)
- (3)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다.
- (4)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다. 불신자도 기도한다. 그 기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그것이 불신자 기도의 내용이다. 기도의 방법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다. 우상, 점술, 무속이다. 그 기도의 결과가 불신자 6가지 상태다. 성공했는데 영원히 해결 안 되는 불신자 상태가 온다.
- (5) 나의 소원을 이뤄기 위해서다. (빌4:6~7)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같아져야 한다는 말이다. 갈수록 기도제목이 강단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그게 기도다. 막 울부짖어서 얻어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2. 언제 기도해야 하나?

- (1)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살전5:17)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한다. 계속 무시기도 속에 있어야 한다.
- (2)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야 한다. (단6:10, 행3:1) 다니엘이 늘 이것을 했다는 말이다.
- (3) 그룹으로 모여 함께 기도해야 한다. (마18:19~20) 합심기도다. 결국 24시 하라는 것이다. 수험생은 수능으로 24시 하고 있다. 산업인들은 사업으로 24시다. 갓난아이는 먹을 것 24시다. 그게 정확한 시간표다. 기도를 24시로 누려야 되겠다.

3. 기도의 내용 - 무엇을 기도할까?

우리의 손에 손가락이 다섯 개 있듯이 손 모아 드리는 기도에도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 이것을 길잡이로 사용하면 균형있는 기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

- (1)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대상29:10~11) 무슨 찬양인가? 창조주

를 찬양하는 것이다. 절대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 여호와께 모든 주권이 있다. 그래서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다. 근본 찬양이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 (2) 고백이다. (요일1:9 사죄, 시32:5)

- (3) 감사다. (엡5:20, 시100:4) 감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다. 눈에 보이면 감사하고 안 보이면 감사 안 하는 그 수준이 아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다.

- (4) 중보다. (엡6:18, 골4:2~4, 약5:16, 딤후2:2) 전체 참사랑교회는 중보 팀이 되어야 한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 (5) 간구다. (마7:7~8, 요15:7)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받는 게 아니다. 찾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표를 찾는 것이 기도다.

4.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단순히 위대한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 (1) 말씀 안에 거하라. (요15:7) 말씀을 확신해야 한다. 우리의 확신이 무엇인가? 응답이 아니다. 말씀의 확신이다. 우리는 응답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다.

- (2)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요14:14, 요16:24)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 우리는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 (3) 믿음으로 구하라. (마21:22) 불가능한 것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다. 확실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불가능한 것을 기도로 도전하라 하면 실패하게 된다. 가능한 것을 보고 도전해야 한다. 그게 말씀이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은 인본주의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보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결론 : 기도의 원리 다섯 가지

- (1) 구원에 대한 감사다. 영원한 감사, 지금도 진행되는 감사, 미래까지 가는 감사다.

- (2) 강단 말씀의 답이다.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 적용하면 답이 된다. 늘 듣던 말씀이 답으로 오는 것이다.

- (3) 집중이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이다.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하는 그 묵상이다.

- (4) 치유다. 답 얻으면 치유되게 되어 있다.

- (5) 균형이다. 나와 내 현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균형이다. 균형은 말씀의 성취다. 강단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균형이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였던 것이 이제는 맞아진다. 성취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균형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란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말씀이다. 이 축복을 현장에서, 모든 사건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축원한다.